

목포시-무안군, 남악·오룡지구 버스 노선 신설 갈등

무안군, 교통 공백 해소 명목 10일부터 순환버스 333번 운행 시 “노선 60% 중복...일방 추진 강경 대응” vs 군 “관할청 재량”

목포시와 무안군이 신도심 남악·오룡지구 순환 버스 노선의 신설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목포시는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운행 감축 등 강경 입장을 보인 반면 무안군은 관내 버스노선 신설은 관할 행정청의 재량권으로 재고의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다. 목포시는 무안군이 신도심 남악·오룡지구 순환 버스 노선을 신설해 운행하는 것과 관련 “무안군이 최근 목포 시내버스 노선과 60% 이상 중복되는 남

악·오룡지구 순환버스 333번을 신설·운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시는 무안군의 이번 노선 신설은 사·군간 사전 협의절차가 없어 전남도의 조례에 위반되고, 무안군이 전남도와 목포시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목포시는 무안군의 일방적인 노선 신설에 반발해 목포시 중심의 노선체계로 전환한다는 강경 입

장을 보이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막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감수하며 노선체계를 운영해왔다”면서 “광역 중심의 공익적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무안군이 신설 노선 예산으로 현재 운행 중인 목포시내버스 1번이나 2번 노선을 연장해 12~15분 간격으로 환승없이 운행할 경우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무안군이 시계의 적자노선 운영에 따른 분담액은 줄여가면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중복노선을 신설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면서 “무안군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9월부터 남악·오룡지구 노선(1·2·3번)을 임시 단축하고, 시계의 노선(108·200·800번)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무안군이 10일부터 목포시내버스(1·2·3번)가 오룡2지구를 운행하지 않는 교통 공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남악지구와 오룡1·2지구를 연결하는 순환버스 333번을 운행한데 따른 것이다. 무안군은 목포시의 주장에 관내 시내노선 신설은 해당 행정청의 재량권이며, 협의과정에서 일부 목포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목포시가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 법적인 문제를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노선은 목포시내버

스가 들어가지 않는 신도심 오룡2지구의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한 조치”라며 “행정 관할 내의 버스 노선신설은 해당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승강장 중복은 2개 노선에서 2개와 4개가 겹치는데 60%가 중복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목포 관내 일부 승강장의 이용도 목포시에서 반대해 다른 곳에서 버스가 정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목포시가 노선 연장 운행 등을 조건으로 재정 지원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목포시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대반동 해안서 산책하고 낚시하며 ‘낭만 충전’

목포시, 72억 투입 친수광장 조성 지난달 공식 개방...관광명소 주목

목포시는 대반동에 조성된 해양산책로, 친수광장, 낚시터 등 해양친수시설을 전면 개방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반동 해양친수시설은 2019년 목포시가 해양수산부에 “대반동 수계선 정비사업”을 건의하면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총 72억 원 전액 국비를 투입해 조성했다. 시설은 친수광장 1357㎡, 해상산책로 207m, 낚시터 130m와 야간경관 조명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23년 10월 착공해 올해 3월 공사를 완료한 후, 지난 5월 목포시에서 준공시설물을 이관받아 공식 개방했다. 목포 대반동공역은 2024년 연안정비와 스카이워크 확장에 이어 올해 수계선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떠오르는 해양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목포 바다의 대부분은 국가관리무역항으



목포 대반동 해양친수시설.

로 낚시행위가 제한돼 있어, 이번 대반동 낚시터 개방은 낚시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반동 해양친수시설 전면 개방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채유형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목포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양도시 목포의 매력을 더욱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광주·전남권 통일교육체제 구축 ‘시동’

세한대-전남통일교육센터 공동업무협약...네트워크 구축 등

전남통일교육센터(센터장 최미순·세한대 총장)가 지난 9일 세한대학교에서 전남지체장애인협회목포지회 김홍봉 지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 교육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전남지체장애인협회목포시지회(지회장 김홍봉), 무안여성상담센터(센터장 송옥주),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정두배), (주)한길씨앤씨(대표이사 박용호)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식은 통일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광주전남에 소속된 사회단체 및 업체를 대상으로 ▲광주·전남권 통일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전남권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공동개

발 및 제공 ▲기관 간 인적 및 물적 자원 상호 교류 ▲상호 협력 및 양 기관의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통일교육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일교육의 네트워크 형성 및 연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통일교육 현황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며, 향후 통일교육 사업 프로그램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전남통일교육센터는 통일부 산하 민간기구로 세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교육과 지역주민 대상 통일 교육,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 등 통일 관련 교육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어린이가 행복한 해남... ‘유니세프’ 인증 획득

2029년 6월 1일까지 4년간 목재놀이터·둘레길 등 주목

해남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y)’ 인증을 공식 획득했다. 해남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은 2025년 6월 2일부터 2029년 6월 1일까지 4년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해남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 부서 신설과 아동친화도시 실행 표준조사, 아동친화도시 4개년 중점사업 발굴, 아동권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아동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에 힘써왔다. 대표적으로 해남읍에 조성된 친환경 목재놀이터는 자연 소재를 활용해 아동의 창의력과 감성을 키우고 지역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한 ‘참여형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가족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아동친화 둘레길 걷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걷기 좋은 코스와 아동권리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아동의 건강할 권리와



해남군 아동친화둘레길 걷기 행사.

놀 권리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업도 추진해 오고 있다. ‘재활용품 활용 ESG 상상놀이터’는 아동의 창의성과 환경감수성을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 페트병, 우유팩, 종이상자 등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활용해 장난감을 제작하고 자유롭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참여단 운영으로 균형

전반에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도 확대하고 있다. 노후화된 횡단보도 도색, 마음치료 심리상담 운영, 해남공룡대축제 버블파티 프로그램 운영 등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어 정책으로 실현되기도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도시가 진정한 미래도시”라며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서 제철 병어 품미 즐겨요

13~14일 축제...먹거리 장터·경매·트레킹 등 다채

13일부터 14일까지 지도읍 신안갯마을 일원에서 ‘제11회 섬 병어 축제’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신안 병어의 제철 품미를 널리 알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병어회, 병어집을 찾는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기간에는 병어회 시식회, 수산물갑작 경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행사장 인근 북합화타운에서는 병어를 비롯해 꽃게, 갑오징어, 광어 등 신선한 제철 활어회를 맛볼 수 있다. 병어 축제와 더불어 ‘제4회 지도 뽕맛 먹거리장

터’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열린다. 먹거리장터에서는 신선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향토 음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14일 오전에는 삼양산 일대를 도보로 누비는 등산·트레킹 행사도 열린다. 참가자들은 체력에 따라 9km 또는 5km를 선택할 수 있다. 신안 병어는 살이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며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로 칠발도·임자도·낙월도 인근해역에서 안강망 어업 방식으로 어획되며 지역경제에 중요한 수



산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병어 어획량은 6926상자(30마리 기준 1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가격은 상자당 40만~50만원 선으로 지난해 80만~90만원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섬 병어 축제는 단순한 먹거리 행사를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실속형 지역 축제”라면서 “병어의 제철 맛은 물론 바다와 자연, 문화를 직접 느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llse@kwangju.co.kr

완도 여행객 82.9% “또 가고 싶어요”

치유페이 이용객 설문...92.4% “치유페이, 경비 절감에 도움”

완도를 찾은 관광객 10명 중 8명 꼴로 재방문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에 따르면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완도 치유페이 이용객 1000명(764명 응답)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2025 완도 방문의 해’에 대해 알고 완도를 방문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92.4%(706명)이 ‘완도치유페이’가 여행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87.4%(668명)는 가맹점 결제과정이 편리했다고 답했다. ‘완도군이 해양치유 관광도시로서 적합하나’에 대한 질문에는 94.1%(719명)이 ‘그렇다’라고 답해 해양치유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완도 관광의 가장 만족스러운 요소로는 ‘자연경

관’이 81.7%(62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 음식’ ‘걷기 좋은 코스’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관광지 중에서는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231.9%), ‘완도해양치유센터’(18.9%), ‘청산도’(15.9%) 등이 가장 인상 깊은 장소로 꼽혔다. 향후 1년 내 재방문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2.9%(634명)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광객들이 완도의 자연환경, 서비스, 지역회화 정책에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숙박시설 확충과 교통 접근성 개선, 정보 제공 강화 등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활짝 핀 연꽃 속 ‘초여름의 낭만’

무안 일로 회산백련지서 26~29일 연꽃축제...체험·공연 풍성

무안군은 여름을 알리는 대표 축제 ‘제28회 무안연꽃축제’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무안 일로 회산백련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축제는 ‘여름이 커지는 순간, 무안에서’란 주제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등의 행사가 마련돼 초여름의 낭만을 수놓을 예정이다. 26일 박지현과 예능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SUM:ON(썸은) 콘서트(한동근, 순순희, 안본의 일), 대학가요제 리턴즈(구창모, 홍서범, 조갑경), 청춘마이크와 태극노래자랑(29일) 등 4일간

의 알찬 여정과 함께 또 다른 이색 볼거리인 야간경관 조명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향수를 자극할 20여 종의 유등과 LED 장미꽃이 환상적인 여름밤을 선물하고, 제17회 황도골 무안 요리 경연대회와 어린이 독서 골든벨 등도 마련된다. 박문재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축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축제가 지역 상권을 살리고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광군 ‘폭염 대응’ 어르신 맞춤형 돌봄

생활지원사 238명 투입 가정 방문·안부 전화로 매일 안전 확인

영광군이 올여름 예고된 역대급 폭염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줄 맞춤형 보호 대책 가동해 나갔다. 영광군은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수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무더위로 인한 어르신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 3241명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생활지원사 238명을 배정했다. 이들은 가정방문과 안부 전화로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

을 촘촘하게 점검한다. 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매일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고위험 노인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적인 대응을 나설 방침이다. 특히 취약계층 노인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119 또는 응급 관리 요원에 신속하게 연락이 가능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도 운영한다. 여기에 폭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읍·면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도 완료했다. /영광=김철원 기자 kcw@